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2주일 · 위령 성월
제33권 50호(다해) 2013.11.10

[묵상]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꽃들이 제각각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잎들도 제각각 색깔의 옷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꽃들은 녹 쓴 고철처럼 시들어 가고,
잎들도 낙엽 되어 떨어지고,
곧 추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꽃들이, 나무들이
“죽었다.” “끝났다.” 라고들 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되어 시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낙엽되어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내일을 위한 준비이고, 기다림입니다.
또 하나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생존 경쟁의 나날들 속에서,
매일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꽃이 시들어 버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이라는 부활의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짝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병자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제단체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 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김병조 마틴
주 일 낮 미사	(연) 주용범 아브라함, 최근석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경용 야고보, 전시웅 요한, 유정복 베네딕도, 이명자 로사, 이용식 베드로, 박준구 요한, 김영수 테레사, 최부금 로사, 박동욱 요셉, 장현숙 발바라, 유점이 베로니카, 주정애 & 김재철, 김완태 다미아노, 김정재 안젤라 & 김소화 테레사, 오기성, 이인순, 돌아가신 레지오단원들
	(생) 이윤조 클라라, 주유식 에드워드, 김기준 안젤라, 정훈모 바오로, 정진권 요한, 정진영 제니퍼, 윤자열 마리아, 정앨리스 클라라, 김씨니 클라라, 김기정 루치아 & 김옥보 안나,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2 Maccabees) 7,1-2,9-14

화답송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
귀 기울이소서.○
○제명의 길 곳곳이 견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 2서(2 Thessalonians) 2,16-3,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복 음 루카(Luke) 20,27-38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46	216	230
봉헌	377	255	269
성체	소원	284	279
파견	225	346	222

올바른 성모신심

제2장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3)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러한 확신에서 그는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결코 한 순간도 원죄에 지배받지 않게 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원하셨으며, 또 그렇게 하셨다(potuit, voluit, fecit)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마리아 신심 시대'라고 할 만큼 마리아 공경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1854년 비오 9세 교황의 회칙「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을 통하여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교의로 선포하는 데에도 이러한 대중적 신심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신학적 사유는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이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첫째, 하느님의 전능성과 은총의 무한함, 둘째, 하느님 선택의 정당성, 셋째, 예수 그리스도 강생의 적합성, 넷째, 예수 그리스도 구원증개 능력의 위대성, 다섯째, 하느님의 은총을 보존한 성실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광, 여섯째, 은총을 받는 인간, 구원받는 인간의 미래 모습의 선취적(先取的) 성취이다.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에 관한 교리는 성경이 제시한 대로 마리아께서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한 가지 표현이고,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기인하며, 인간의 죄와 타은 하느님의 구원에 결코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가르치는 교리이다.

4)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비오 12세(Pius XII) 교황은 1950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에 회칙「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Munificentissimus Deus)을 통하여 성모 승천을 교의로 선포하였다.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지상 생애의 여정이 끝난 다음 그 영혼과 육신이 천상의 영광 안에 받아들여지셨다." 이 회칙이 선포되기까지 오랜 세기 동안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전승이 있었다.

사실 성경은 십자가 아래 계신 마리아(요한 19,25-27 참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성령을 받으신 마리아(사도 1,14참조)의 모습을 전해 준다. 그 이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전해 주고 있지 않다. 4세기 말엽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오(Epiphanius)교부가 처음으로 마리아의 생애 마지막에 관하여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을 가능성, 시메온의 예언에 비추어 순교하셨을 가능성, 그리고 요한 묵시록 12장에 비추어 하늘에 불러 올림을 받으실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구원된 모든 사람들이 장차 얻게 될 상급이기 때문이다. 그 후 예루살렘의 티모테오(Timotheus)교부가 루카 복음 2장 34절을 해설하면서 마리아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과 더불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강조하였다. <◆계속>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희망을 찾습니까?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천주교를 믿습니까?
첫째, 복을 받기 위해. 둘째,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위해. 셋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넷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2004년 한국갤럽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하면서 불교인과 개신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에게 “왜 종교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천주교인의 7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믿는다고 대답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6.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도 마음의 평안이 59.4%로 많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한 대답이 22.7%에 달하면서 천주교인보다 3.5배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 이야기를 한국 천주교인의 종교의식에 따라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시리아왕 안티오코스가 이교제사를 강권하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데에 대하여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2마카 7,9)라고 항변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만약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믿었다면, 그들도 현실에 타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내세의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모두 죽음을 선택하였을까요?

한편 제2독서에서 데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서간은 제2장에서 특히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서 일부 신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사되기 이전에

먼저 많은 전조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고찰이 이 서간의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점은 데살로니카 신자들도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든지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초대 교회에서부터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이 신학적 중심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과 부활논쟁을 벌이셨는데, 오늘 복음말씀인 루카복음보다 마태오복음에서 그들을 더욱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마태22,29~30)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루카20,36) 결국 사두가이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희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 질문하고 꾸지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세구원에 더 큰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각자 진지하게 자문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노인을 단지 관심과 친밀함과 봉사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경험의 풍부한 보화 덕분에, 노인은 희망과 사랑의 증인이자 자혜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4항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11월부터 본당 평일미사가 월, 화요일에 신설됨으로써 매일 봉헌됩니다. (*미사스케줄 시간표는 주보 1면 참조)

- 월요일 새벽미사 : 오전 6시30분
- 화요일 저녁미사 : 오후 7시30분
- 수,목,금 미사는 종전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분과 '뇌혈류검사' (중풍검사) 및 독감예방주사 접종

- 일시 : 오늘 주일(10일) 오후 1시~3시 강당
- 뇌혈류검사 대상 : 50세 이상 남녀교우
뇌로 올라가는 정맥의 혈류량을 초음파검사를하여 중풍가능성 여부를 조기진단합니다.
- 독감예방주사 대상 : 18세이상, 노약자
(계란 알러지 없는 분)
- 후원 : 대한프로스펙트 메디컬/수호천사보험
- 문의 : 이정훈 안셀모 사회복지분과장 ☎(310)908-8823

◆ 성모회 11월모임과 '성모회표 총각김치' 판매 안내

- 11월 모임 : 오늘 주일(10일) 오후 1시 친교장
- 김치판매 : 11월17일(주일, 토요일전미사 포함)
- 빈병모읍니다.(15일 금요일까지)
- 문의 : 권순길 체칠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제32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토록 노래하오리다." - 시편 89: 2-
- 일시 : 11월28일(목) 오전 10시30분 연합미사
 - 미사집전 : LA대교구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님
 - 2부행사 : 오후 1시, 각성당별 경합 '전국 노래자랑'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롱비치)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조직협의회
 - 주관 : 백삼위 한인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행사당일 오전 9시45분까지 입장하시면 공원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고 모자도 드립니다.

◆ 대림 특강

- 일시 : 대림 제1주일/제2주일(12월1일, 8일) 오후 1시
- 주제 : '신앙은 천하지대본야(天下之大本也)'
- 강사 : 오창근 베드로 본당 신부님
- 장소 : 성전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213)505-2941

◆ 추수감사절미사 합동 성가연습에 적극 참여합니다.

- 일시 : 11월 24일 주일 오후 1시 본당 성전,
- 리허설 : 11월28일 당일 오전 8시 엘도라도파크 현장
- * 문의 : 민원희 안나 본당 지휘자 ☎(310)634-9631

◆ 남가주 M.E. 송년모임

- 일시 : 12월21일(토) 오후 6시
- 장소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5000 Clark Av. Lakewood, CA 90712)
- 참가비 : 부부당 \$150(경품 포함)
- 연락처 : 본당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백삼위 서예 동호회원 초대합니다.

- 일시 : 매월 2째, 4째주일, 오후1시30분
- 대상 : 한문, 한글 서예와 사군자를 배우고 싶은 새회원
- 회비 : 월 \$20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지정된 흡연구역외에서는 금연합니다.

- 본당 건물 북쪽 양 코너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꽂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10일(주일) : 하버/카슨(손수제비 \$3)
* 주일학교(베테른스테이 연휴 수업없음)
- 11월17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 주일학교(1,2학년 치킨케사디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금영도	김관기	김광자	김기정	김상근	김선제	김성택	성전헌금	금영도	김관기	김광자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영길
	김양금	김영경	김영길	김옥찬	김원모	김정웅	김종렬		김원모	김준호	김철민	남명자	문향업	박상준	박씨니
	김준호	김철민	김향선	남명자	문향업	박상준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박현주	방정복	석순영	신경훈	신대식
	박인식	박정희	박현주	방정복	배기엽	석순영	성필영		신현화	안민수	안재만	엄정자	오영섭	윤화경	이근모
	신경훈	신대식	신현화	안민수	안재만	엄정자	오명섭		이근태	이상석	이은록	이일길	이효세	전정일	정정현
	오영섭	윤화경	이근모	이근태	이상석	이은록	이인두		정혜영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최원석	최재은	최지영
	이태옥	이효세	전정일	정남형	정정현	정혜영	조준제		한장환	홍석인	황지영				
	주대중	주용순	최원석	최재은	최지영	한장환	현석주								
	홍석인	황인협	황지영												
	합계 : \$7,720								합계 : \$4,510						
주일미사 헌금 : \$2,968	2차헌금 : \$935							감사헌금 : 최수복 전정일	주보광고후원 : \$250						

주일학교 소식

자모회 기금모금 바자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3일) 자모회가 봉사한 기금모금 바자회에 참여해주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삼위 본당 어린이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 총대출액 : \$3,738(사목회 대추판매 지원 \$300 포함)
- 재료비 : \$1,237, **순수익 : \$2,501**
- 문의 : 한길선레 스포라스티카 자모회장 ☎(310)782-1025

오늘 주일학교 수업없습니다.

- 베테렌스데이(11일) 연휴관계로 오늘 주일학교 수업이 없습니다.(한국학교는 수업합니다.)
- *오늘주일(10일) 학생미사는 한국어로 봉헌합니다.

펀드레이징 행사

- 일시 : 오늘 주일(10일) 낮미사후 친교장
- 행사내용 : 맛있는 쿠키, 커피, 티 등 디저트 판매
- 목적 : 중고등부 행사용 티셔츠 제작비 지원
- 티켓 : 1장에 \$10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 ☎(310)613-9116

본당 소년 레지오마리에 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pr.) 모집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등록학생으로 7학년 이상
- 주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성당 2층교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단장 ☎(310)709-3343
소운선 요세피나 부단장 ☎(310)630-7373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드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지경수 파태오 972-1469 11/9(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720-8240 11/16(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11/8(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데오도시오 780-3258	김주량 요한 782-8549 11/9(토)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정남형 알베르토 347-9487 11/9(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코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코 617-1132 11/28(목) 추수감사절행사참여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현석주 아오스딩 560-4968 11/15(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최순옥 스텔라 951-4710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11/28(목) 추수감사절행사참여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1/18(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1/8(금) 오후 8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544-1267 11/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나 482-9108	배재일 미카엘 482-9108 11/8(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11/8(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케스 617-3568	한애경 율리아나 617-3568 11/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남가주 소식

성 아그네스 성당 제18기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11월11일(월), 14일(목)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지도 :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강료 : \$200(첫강의 후 10회 실습)
- 문의 : 성당 사무실 ☎(323)731-4433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 11월16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예시절(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구 1일 찻집)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데레사 수녀

남가주성령체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체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
(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제가 본당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초등부 선생님 한 분이 유치부 어린이 한 명을 데리고 2층 성가대석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어린이가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벽에 있는 저건 뭐예요?” 그 어린이가 가리킨 것은 제단 벽면에 걸린 십자가상이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그 날 성당을 처음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자신의 눈높이에서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어린이에게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 주신 이야기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3)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와 어린이의 비유를 자주 언급하십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집이 부유하거나 가난함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른들만 구분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안 그렇지요? 아닙니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가 안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건의 조건만 따지는 어른들을 홀대하시고 아무런 조건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어린이를 우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 두어라.”

사실 하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루카 18:16)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어른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질투가 난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저 뒤에 있는 유리창 안에 가둬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도록 일어서서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있는 영아들은 한 아이가 울면 따라 울입니다. 그러나 자기 울음소리를 녹음했다가 들려주면 울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타고난다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동그라미를 도와주는 착한 세모와 못 올라가게 막는 나쁜 네모의 영상 실험도 10개월 된 아이들에게는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그들의 선함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선함을 보호하고 악에 맞서 앞장서야 합니다. 주님과 만날 때는 어린이를 앞장세워야죠. 태어나서부터 주님을 맞들이고 자신을 지어주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차가운 눈발이었

던 기인의 집 앞뜰이 어린이의 재잘거림으로 따뜻한 봄꽃이 피어난 것처럼, 성당 앞마당도 어린이들의 재잘거림으로 가득차야 합니다. 항상 성당에 들러서 예수님께 인사했던 어린이가 아파 누웠을 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이들이 성당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른들의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어른들 탓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박종수 사도요한 신부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성모님의 눈빛으로

지난달, 아키타(秋田) 성체봉사회에서 있었던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의 밤’ 순례를 다녀왔다. ‘신앙의 해’를 끝맺으면서 로마교구가 주최한 대대적인 행사였다. 특히, 이 행사의 놀라웠던 점은 세계 10개소의 성모 순례지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벨기에 바브, 브라질 아파레시다, 프랑스 루르드, 인도 바이랑카나, 이스라엘 나자렛, 케냐 나이로비, 폴란드 쉰스트호바, 미국 워싱턴, 그리고 일본 아키타가 서로 생중계로 연결, 동 시간대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과 얼굴을 마주 보며 ‘기도의 밤’을 보냈다는 것이다.

밤 11시가 되자 기다렸던 행사가 시작되었다. 키쿠치(菊地)주교님은 “장엄하고 조용한 밤이지만, 마음속 깊이 하느님 앞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라.”며 초대했다. 이어, 일본어, 베트남어, 한국어, 타갈로그어와 영어 5개국어로 행해진 4차례의 성체강복이 밤새 기도의 산을 넘어야 할 신자들의 영적 힘을 북돋아 주었다.

뒤이어, 로마교구의 행사장에 바티칸으로부터 파티마의 성모상이 헬기로 모셔져 왔고, 함께 깨어 기도하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손과 손에 묵주를 들고 ‘아베 마리아’를 목청껏 노래했다. 각 단의 중간에 신앙의 체험을 증언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도의 마음으로 모아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가슴 깊이 전해져왔다.

또 이 거룩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그 옛날, 나를 천주교 신앙으로 인도해준 어머니와 많은 은인이 생각났다. 교명이 때 성당 가라고 하면 청개구리같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졌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는 이 신앙으로 인해 이렇게도 기쁜 날을 맞이하리란 것을 왜 그렇게도 몰랐던지. 천국의 기쁨도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닐까? 체노두스 교황 대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더욱 하나로 모아주었다. “성모님의 눈빛을 느껴라!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연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모님의 눈빛을 마음속에 떠올려라. 우리는 눈빛으로 애정과 격려, 자비와 사랑을 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질책과 질투, 교만과 미움까지 전할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모님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아침 7시, 파견미사까지 마치고 나오니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 몸은 천근만근 피곤했지만, 왠지 영혼이 기뻐 뛰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기도의 밤’을 보내 준 교우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고, 그들이 있기에 내 신앙도 단풍처럼 붉게 물들어감을 느꼈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 / 일본 히로시마 선교